

'인질 전원 석방 합의' 숨가땀던 '대면협상'

印尼 보증인 참여... '석방' 미리 점쳐

위성전화 등 통해 상당부분 사전 합의
어젯밤 대면협상서 전격 합의 도출

아프간 한국인 인질 피랍사태 41일만에 극적으로 생존인질 전원 석방 합의가 이뤄진 것은 한국정부의 치밀하고 끈기있는 외교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압력이 이뤄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번협상에서 탈레반측이 인질사태 초기에 요구하고 나왔던 한국군 즉각 철군이라는 문제에 대해 '테러세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당초 한국정부의 계획대로 철군을 진행한다는 명분을 지키게 했다.

현재까지의 보도로는 인질들에 대해 별도의 몸값을 지불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담도 벗겨 졌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기독교 선교활동의 중지 약속은 한국정부가 이미 아프간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만큼 이역시 탈레반엔 명분을 주고 한국정부로서 고민스러울 게

없는 결정이다.

인질 전원이 인천공항의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까지 방심 할 수는 없지만 세계 인질극 사상 유례가 드물게 많은 인원을 붙잡힌 한국으로서서는 인명을 존중하며 끝까지 평화적·외교적 방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한 드문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한국인 인질 협상을 위한 한국 측과 탈레반의 4차 대면협상이 28일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오후 6시)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주 주도(州都) 가즈니시 적신원사 건물에서 12일 만에 재개될 당시부터 양 측은 지속적인 '물밑 교섭'을 통해 일정할 합의들 이룬 상태에서 마련됐다. 이 점에서 추가 인질석방의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많아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AIP는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이 "19명 인질의 운명을 결정할 이번 대면 협상에 보증

인 역할을 담당할 제3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면협상에 깊게 관여한 현지 소식통은 "오늘 협상은 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대면협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협상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도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인질석방 합의가 이뤄질 것 같다는 보도는 일부 외신을 통해 오전부터 간헐적으로, 그러나 지금껏 오락가락 했던 보도들과는 달리 일관되게 흘러나왔다.

오후 8시 이후 이슬람권의 유력언론 알 자지라 방송이 인질전원석방 합의사실을 보도 할때까지도 한국인과 인질가족들은 사실 여부를 반신반의 했으나 여지껏 지나칠 정도로 신중한 자세만을 견지해오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이날 이뤄진 탈레반과의 대면협상 결과에 대한 이례적 중간발표를 하고나서면서 극적 합의에 대한 기대는 극에 달했다.

마침내 청와대는 오후 8시 30분경 합의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연합뉴스

그리스 산불 63명 사망... 전역 확산

사상 최악의 산불로 고봉탕고 있는 그리스 정부는 긴급 재난 구호에 2억 유로(한화 2천500여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페트로스 두카스 재정부 차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며 "향후 이보다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산불로 타버린 가옥을 재건하고 기업들에 세금 혜택을 주는 등 피해자들에게 최선의 구호 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그리스의 중앙은행과 노동조합 등도 재난 구호를 위해 7천만 유로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스에서 지난 24일 시작돼 나올째 지속하고 있는 산불로 지금까지 63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나 불길은 그리스 전역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날 그리스 산불을 계기로 회원국들의 재해 발생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난대응 팀을 창설을 제안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北·美 관계정상화 실무회의
내달 1~2일 제네바서 개최

미 국무부는 북핵 2·13합의에 따른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다음달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27일 공식 발표했다.

톰 케시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9월 1~2일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이 회의에는 미국측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북한측 대표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축구장 3개 넓이... 게임 테이블 1,150개

마카오 베네치안 카지노는 호텔 객실 3,000개 모두 스위트룸



28일부터 공식 영업을 시작한 마카오의 '베네치안 마카오 리조트 호텔' 전경. 이 호텔은 객실 3천개가 모두 스위트룸일 뿐 아니라 축구장 3개 넓이의 세계 최대 카지노장을 가지고 있다.

축구장 3개 넓이의 세계 최대 카지노장과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호텔이 마카오에 개장. 28일부터 공식 영업을 시작했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대부 셸던 애덜슨 샌즈사 회장은 28일 마카오의 타이파섬과 콜로안섬 중간의 매립지인 코타이스트립에서 베네치안 마카오 리조트 호텔 개장식을 가졌다. 객실 3천개가 모두 스위트룸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마카오에 첫 미국 자본이 투입된 카지노 샌즈를 운영해오던 애덜슨 회장이 25억달러(약 2조4천억원)를 투입해 건설했다. 개장 첫날 호텔 객실은 모두 예약 완료됐다.

베네치안 마카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일산 킨텍스의 2배 크기인 컨벤션 센터로 10만8천㎡ 넓이의 회의장, 전시회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 모두 5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다.

이밖에도 5만725㎡ 규모의 카지노에는 무려 7천여대의 슬롯머신과 바카라, 블랙잭 등 1천150개의 게임 테이블이 마련돼

있다. 베네치안 마카오가 성공할 경우 2010년까지 마카오의 전체 카지노 매출은 현재의 두 배인 137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개장식에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를 추진중인 전남도 공무원을 비롯, 한국관광협회, 국회의원 등이 축하를 위해 베네치안 마카오를 찾았다. 전남도는 J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베네치안 마카오의 운영 실태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마카오=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부시 “日帝 군대는 알 카에다와 똑같다”

아베 총리와 엇갈린 역사 인식... 갈등 고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180도 다른 일제 과거사 발언이 미묘한 과정을 낳고 있다.

더없는 동맹을 자처하는 두 나라 정상이 공교롭게도 지난주 같은 날 일본 과거사를 놓고 전혀 다른 주장을 했기에 두 사람의 인식차이는 더욱 커보였다.

"미국을 상대로 자살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일제 군대와 알 카에다는 너무나 똑같다. 진주만 공습은 9·11과 똑 닮았고, 일제의 대동아제국 건설 주장은 이슬람 근본주의세력을 확산시

키려는 오사마 빈 라덴의 이념과 다름없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미 해외참전용사회 연례 모임 연설에서 풀어놓은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수 천명의 미국인들이 기습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이야기"의 요지였다.

바로 그 날 아베 총리는 인도 의회에서 한 인도 판사를 극찬하는 연설을 했다. 1948년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유일하게 A급 전범 25명 전원의 무죄를 주장했던 라다비노드 팔 판사를 언급하며 그가 "극동군사재판에

서 기꺼운 용기를 보였다"고 칭송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날 팔 판사의 아들을 찾아가서는 "팔 판사는 일본-인도 관계의 기초를 닦은 사람 중 하나"라고까지 치켜세웠다.

미국과 일본은 그러잖아도 울어들일제 위안부 문제를 놓고 격렬한 시각차를 노출한 바 있다. 올해 초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을 없앴다'는 요지의 아베 총리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솔직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문제에 대처할것을일본측에 촉구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제5기 한자한문지도사 자격모집

1. 모집인원: 30명 (11월 15일까지)

2. 신청자격: 2005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3. 신청기간: 2007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 접수처: 한국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길 17-12)

5. 수수료: 30,000원

6. 시험장소: 한국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길 17-12)

7. 시험일자: 2007년 9월 15일 (토요일)

8. 합격자 발표: 2007년 9월 20일 (수요일)

9. 기타: 한국문화재단 홈페이지 (www.kcf.or.kr) 참조

문의: 02-399-8900, 011-0612-5530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진료상담-주주-허벅지노출

다이어트 전문가 지리산한약방 홍기원에게 물어보세요

◆ HAVEN: 김세향에 지리산한약방 을 처방해요

문의: (062)531-3638, 531-0700
523-4800, 011-0612-5530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철 89,000원

여행자 2인 무료(제주도민 제외)

제주도 4박5일 여행 - 제주도 관광 1박 2일 (제주도민 제외) 89,000원

- 북오출발 "북오투어" 89,000원
 - 제주도 4박5일 여행 (제주도민 제외)
 - 제주도 4박5일 여행 (제주도민 제외)
- 남오출발 "남오투어" 70,000원
 - 제주도 4박5일 여행 (제주도민 제외)
 - 제주도 4박5일 여행 (제주도민 제외)
- 제주도 4박5일 여행 7박 10박 제주산 특별 1박 2일
 - 제주도 4박5일 여행 7박 10박 제주산 특별 1박 2일
- 제주도 4박5일 여행 "귀족여행" 700,000원 (제주도민 제외) 170,000원 (제주도민 제외)
 - 제주도 4박5일 여행 "귀족여행" 700,000원 (제주도민 제외) 170,000원 (제주도민 제외)
- 제주도 4박5일 여행 "제주도민" 700,000원 (제주도민 제외) 170,000원 (제주도민 제외)
 - 제주도 4박5일 여행 "제주도민" 700,000원 (제주도민 제외) 170,000원 (제주도민 제외)

문의: 064-744-1109 www.jmctour.com

7급공무원

www.hanbit.gov.co.kr 공무원합격 검색률 1위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 수많은 합격자 배출 = 수험생이 찾는 학원 한빛이 향배해주신

1위 7급공무원

한빛공무원학원

100% 합격률

한빛공무원학원은 한빛제 있다!

한빛공무원학원

문의: 234-1001